PHILIPPINES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 기념

2019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2019 Hansae 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Exhibition

CHATI CORONEL <Invoke : Light to Matter to Spirit>

필리핀 미술, 그 다양성과 역동성

The Hybridity and Dynamism of the Contemporary Art of the Philippines

HANSAE YES24 FOUNDATION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 기념

2019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2019 Hansae 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Exhibition

필리핀 미술,
그 다양성과 역동성

The Hybridity and Dynamism of the Contemporary Art of the Philippines

2019년 9월 4일~9월 9일

인사아트센터

목차

인사말

조영수 | 04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

필리핀 미술–그 다양성과 역동성

최은주 | 06
전시 기획자

작가소개

제드 메리노 | 18
진 카반기스 | 22
뤼 메디나 | 30
빅토르 발라농 | 38
키티 카부로 | 40
알빈 그레고리오 | 48
잉글랜드 히달고 | 54
호안 프랭크 사바도 | 60
페트리샤 페레즈 유스타키오 | 68
차티 코로넬 | 70
노베르토 롤단 | 74

약력 | 82

Contents

PREFACE

Cho, Youngsoo | 05
Chairperson , Hansae Yes24 Foundation

Philippine Art – Its Hybridity and Dynamism

Choi, Eunju | 10
Curator

ARTISTS

Ged Merino | 18
Zean Cabangis | 22
Lui Medina | 30
Victor Balanon | 38
Kitty Kaburo | 40
Alvin Gregorio | 48
England Hidalgo | 54
John Frank Sabado | 60
Patricia Perez Eustaquio | 68
Chati Coronel | 70
Norberto Roldan | 74

Biography | 82

인사말

2019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의 개막을 선언하면서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다섯 번째 국제문화교류전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후원하고 매년 2천여 명 이상이 관람하고 있는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국제문화교류전은 예술을 통해 아시아인들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를 맺은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수교를 맺은 첫 번째 국가이며, 한국전 참전으로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년의 의미를 기념하여 '필리핀 미술, 그 다양성과 역동성'展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은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다양한 토착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과 미국, 일본 등 외세의 침략 속에 자생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문화는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강한 필리핀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핀 미술, 그 다양성과 역동성'展이 우리에게 가까운 필리핀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필리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현대 미술에 투영되어 있는지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이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 **조 영 수**

Preface

Declaring the opening of the 2019 Hansae 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Exhibition

Thank you for coming to the 5th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Exhibition of Hansae 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Exhibition i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ore than 2,000 people attended the Exhibition every year. Hansae Yes24 Foundation has been holding the exhibition since 2015 in the hope of exchanging Asian thought and culture through arts.

This year is especially meaningful as it has been 70 years since Korea and the Philippines have started their friendly relationship. The Philippines is the first ASEAN country to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and has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 since the Korean War. In honor of these 70 years and of the meaning that they hold, I am pleased to present the exhibition 'The Hybridity and Dynamism of the Contemporary Art of the Philippines'.

As you are well aware, the Philippines has indigenous cultures stemming from more than 7,000 islands, with the influence of Spa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made a distinctive culture where Eastern and Western culture coexist.

As a nation of multi-cultur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hilippines' cultural diversity. However, I hope that the 'The Hybridity and Dynamism of the Contemporary Art of the Philippines' exhibition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the lives and cultures of the Filipinos who are distant, yet closer than we might think.

I also hope that by comparing how the Filipinos' thoughts of various cultures are reflected in contemporary art, our people can feel closer to the Philippines. It is my wish for this exhibition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Asian culture and the value of mutual coexistence.

We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interest and guidance in our Foundation's future work. Thank you.

September, 2019

Dr. **Cho, Youngsoo,** Chairperson, Hansae Yes24 Foundation

PHILIPPINES

필리핀 미술–그 다양성과 역동성

최은주
전시 기획자

1987년 이후 필리핀 미술은 독재에 의해 훼손된 민주적 가치들을 회복시키려는 노력과 세계화(Globalization)의 거센 물결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기울여야 했다. 다원적 주제가 미술에서 논의되었고 미술의 내용과 형식, 생산과 수용이 이전과 전혀 다른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 하게 되었다.

이번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기획한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11명의 작가들은 필리핀 미술의 전통을 의식하고 현대적 특성과 경향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작가들이다.

1. 필리핀 미술 개관

놀랍게도 필리핀에 서양의 유화기법이 전래된 것은 스페인의 지배시기(1521–1898) 였던 16세기였다. 그리고 장장 4세기에 걸친 19세기까지 필리핀의 유화 장인들은 서양의 기법으로 성화를 그렸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일명 일루스트라도 (ilustrado)라고 불리우는 토착 엘리트들은 숙련된 유화 장인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초상화를 의뢰했다. 그것도 그들의 지적 수준과 부를 과시할 수 있을 정도의 묘사방식을 요구했다. 필리핀 미술에 있어 세속화가 진행된 것이다. 회화에서 레이스나 금세공된 보석의 묘사와 같이 세부를 치밀하게 묘사하는 기법인 미니아투리스모(miniaturismo) 기법이 그들의 초상화에 적극 활용 되었다. 그런 기법이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은 유화기법이 필리핀의 화가들에게 완전히 흡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더니즘 수용 vs 제국주의 저항

1896년에서 1898년에 걸쳐 일어났던 필리핀 혁명과 1899년에서 1902년에 일어난 스페인과 미국 간의 전쟁은 스페인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 지배를 종결시켰다. 일본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필리핀을 점령한 기간을 빼더라도, 미국은 1899년부터 1946년까지 필리핀을 지배했다. 필리핀 미술사가들은 미국이 지배했던 이 시기부터 대통령제가 도입된 1969년까지를 '후기식민지기'로 분류한다. 이 시기에 필리핀 미술은 모더니즘의 수용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함께 일어났고 미술에 있어서의 근대화가 촉진되었다. 1909년에 설립된 필리핀미술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chool of Fine Arts)으로 대표되는 아카데믹한 체제가 성립되었고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경향이 종합된 양식이 당시 필리핀의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 되었다. 이런 경향의 선봉에 섰던 작가인 페르난도 아모르솔로(Fernando Amorsolo)는 필리핀 농촌의 풍경을 목가적으로 그림으로써 필리핀의 향토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했다. 이러한 경향은 곧이어 부상한 20세기 모더니즘의 흐름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어서 보수주의와 모더니즘 사이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각 진영에서는 저마다 자신의 주장을 활발하게 펼쳤다. 1950년대에 들어서서는 모더니즘의 승리가 확연해졌다. 필리핀의 모더니스트들은 입체주의를 비롯한 모더니즘의 다양한 양식을 탐구하면서 민족주의, 탈식민주의 등을 통해 식민주의의 잔재들을 극복하고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중에 필리핀적 큐비즘인 '투명 큐비즘 (Transparent Cubism)'이 빈센테 마난살라(Vincente Manansala)에 의해 창안되는 성과가 있었다.

필리핀이 대통령제 공화국이 된 것은 1969년이다. 필리핀 미술사가들은 이 때부터 1986년까지를 '국가시기', 그리고 1987년부터 현재까지를 '후기국가시기'로 나눈다. 국가시기에 필리핀 국민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를 체험했다. 마르코스의 부인인 이멜다(Imelda)는 모더니즘 양식을 옹호했다. 이멜다의 의도는 필리핀이 아방가르드적인 미술을 후원할만한 능력이 있는 민주적 국가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독재체제하에서, 가난과 억압에 짓눌린 민중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진보적 미술단체와 작가들이 등장한 것 역시 이 시기의 특징이다. 1972년에 결성된 정치적 미술조직인 '미술과 건축의 진보조합(Progressive of Arts and Architects)'와 페미니즘 단체인 '카시불란(Kasibulan)'에 속한 작가들은 사회적 리얼리스트로서 필리핀의 민족적 정체성 추구를 강령으로 삼았으며 '미술의 역할'과 '누구의 미술인가'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졌다.

'후기국가시기'(1987–현재)는 1986년 발생한 '피플 파워 혁명(People Power Revolution)'으로 촉발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필리핀 미술은 독재에 의해 훼손된 민주적 가치들을 회복시키려는 노력과 세계화(Globalization)의 거센 물결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기울여야 했다. 다원적 주제가 미술에서 논의되었고 미술의 내용과 형식, 생산과 수용이 이전과 전혀 다른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필리핀의 정치, 경제적 혼란 상황은 여전하였고 빈민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노동력을 제공을 위해 세계를 유랑하는 필리핀인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필리핀의 현대 미술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2. 전시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세계: 풍경, 유전, 풍자, 욕망, 치유

진 카반기스(Zean Cabangis)의 풍경화에 등장하는 강렬한 구조와 색채를 가진 정체 모를 구조물들은 다분히 자연에 대한 인공물의 존재를 의미한다. 사진기법과 회화기법을 병행하여 화면에 여러 층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배치하는 카반기스의 의도는 자연이 인간에 의해 변형, 왜곡되고 지배받는 상태를 은유하기도 하지만 자연과 공존해 온 인간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의 풍경 속에 과감히 포치된 카반기스의 상상력에 의해 창안된 구조물들은 실제적인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구조적 특성과 스케일에 힘입어 오히려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특히 컬러풀한 줄무늬를 활용해 쌓아올린 대형 구조체와 지표면을 파고들어간 듯이 보이는 구멍들은 지층의 단면을 표현한 동시에 인간 내면의 심리적 지층을 상징하는 풍경의 은유로서 등장한다.

뤼 메디나(Lui Medina)의 시각 역시 언제나 풍경에 머문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주목하는 곳은 풍경의 가장자리 혹은 두 개의 풍경이 겹쳐지는 애매모호한 공간이다. 왜냐하면 지형학적 자연풍경에 있어서 고정된 상태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나의 작업은 유동하는 풍경의 잠재성을 드러내는데 주력한다. 때로는 풍경과 풍경 사이의 경계 지움을 거부한다. 메디나에게 지구는 언제나 새롭게 형성되고 부서지고 쪼개지는 진행형의 행성이기 때문이다. 흑연으로 그려지는 그녀의 풍경들은 지형학적 풍경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키티 카부로는 한국계 필리핀 작가이다. 그녀의 이름에 등장하는 '카부로'는 한국어 음역의 일종이다. '까불어'라는 단어의 기억을 간직한 작가는 자신의 이름에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자 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풍경은 필리핀에서 경험한 온갖 원색이 넘실대는 열대의 풍경이다. 그 풍경 속에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음모와 욕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간파한 이 젊은 작가는 언뜻 보기에는 아름다

워 보이지만, 이면을 들쳐보면 암울한 서사를 담고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다. 화학적 위험성이 도사리는 에덴동산과 네온으로 점멸하는 산란등의 풍경은 필리핀의 현실을 은유한다.

노베르토 롤단(Norberto Roldan)은 분명한 어조로 필리핀인들의 현재의 삶이 어느 뿌리에서 파생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오브제 아트로 재현한다. 그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오브제들은 필리핀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오브제와 오브제 사이의 관계성을 새롭게 형성한다. 그의 작업에서 필리핀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들이 읽혀지는 것은 당연하다. 향수를 자아내는 낡은 흑백의 초상사진, 꽃무늬로 치장된 프레임, 기도를 위한 성물들, 작은 인형들과 약병들은 한 개인의 내밀한 과거를 소환시키는 것 같지만 실은 필리핀 사람들이 겪어낸 역사의 유전을 암시한다.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가 필리핀인으로서 살아온 이야기가 그의 작품에 담기는 것이다. '망명자'와 '전도사' 는 그런 필리핀인들의 삶의 양태를 함축하는 단어이다. 전통적인 제의에 사용되는 배너형식을 차용한 〈주문〉 연작은 롤단이 얼마나 필리핀인의 정체성 탐구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호안 프랭크 사바도(Hoan Frank Sabado)는 드로잉의 범주에서 작업한다. 종이위에 펜과 잉크로 그려진 그의 도상들은 어느 다른 작가들보다도 필리핀적이다. 인물화를 그릴 때조차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타투로 얼굴을 장식한 소수민족이다. 그 인물들의 목과 귀는 인물이 속한 부족사회를 알아챌 수 있는 목걸이와 귀걸이로 치장되어있다. 인물의 배경에는 필리핀의 화산, 숲, 나무, 새 등이 배치됨으로써 필리핀 그 자체를 그려 넣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인물이 빠진 경우라도, 사바도의 그림은 필리핀의 신화와 설화를 도상학적으로 해석하여 보여준다. 만달라의 형상을 따른다.

날카로운 비평적 시각에서 풍자의 영역에 들어간 작가들에 잉글랜드 히달고(England Hidalgo)와 알빈 그레고리오(Alvin Gregorio)를 들 수 있다. 히달고는 한 눈에 보더라도 고야의 〈로스 카프리초스〉(1797–1799), 〈전쟁의 참화〉(1810–1815)와 같은 판화연작에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드러낸다. 고야가 이 판화연작을 제작하면서 당시 스페인 사회의 악폐와 인습, 종교적 타락, 무능한 정치, 비참한 민중의 모습을 그려낸 것과 마찬가지로 히달고 역시 광기와 폭력에 휩싸인 인간군상을 묘사한다. 스페인의 필리핀 통치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히달고의 그림 속에서 스페인과 필리핀의 유사한 정서적 체험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등장인물들의 옷이 필리핀 고유의 의상이 아니라 18–19세기 유럽풍으로 그려짐으로써 이러한 공감대는 더욱 증폭된다. 묘사된 장면이 스페인이든 필리핀이든 살육의 현장인 것만은 분명한 히달고의 괴기하고 섬뜩한 그림들은 필리핀의 굴곡진 역사와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한다.

알빈 그레고리오(Alvin Gregorio)의 풍자 방식은 팝적이거나 만화적인 이미지들로 보다 강화된다. 그의 가족은 2차대전 이후에 노매드적인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성장한 그레고리오는 자연스럽게 이민과 가족의 해체, 글로벌리즘, 폭력과 전쟁 등의 주제를 다룬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부엉이와 팬더는 작가의 페르소나로서 또 다른 자아의 상실감과 무력감을 표시한다. 그들은 밤의 생각에 빠져들고 자신만의 방을 만들며 부동의 자세로 무저항의 제스처를 취한다.

빅토르 발라농(Victor Balanon)은 영화적 기법을 활용한다. 〈모순 제조기(Paradox Generator)〉라는 연작을 제작함에 있어 발라농은 잉크와 목탄만을 사용해 흑백의 드로잉으로 완성시켰다. 이 드로잉들의 분위기는 마치 무성영화의 스틸컷을 연결해 놓은 것 같아 보인다. 대부분 어떤 한 부분만을 줌인 한 듯이 보이는 장면들은 수많은 암시와 복선을 유발시킨다. 비록 그림이지만 발라농의 드로잉들은 발라농의 편집에 의해 전혀 다른 시놉시스를 갖게 된 영화처럼 관람자에게 다가간다. 각각의 장면은 독립적이기때문에 관람자들은 발라농의 작품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게임에 빠져들 수 있다.

페트리샤 페레즈 유스타키오(Patricia Perez Eustaquio)는 주변부에 대한 주제를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 상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변부 혹은 버려진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작가로 하여금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북돋아 그녀가 사용하는 재료의 범주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스타키오의 재료에 대한 해석은 옷감과 실 따위의 직물을 만날 때 기대이상의 효과를 얻어낸다. 유스타키오는 '욕망된 욕망' 의 잔재물인 직물의 파편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주는 영감과 허무함을 그의 작업으로 이끌어드린다. 그의 타피스트리에서 화려한 꽃무늬를 연상시키는 밀레피오리(millefleur)풍은 현대 소비문화 사회 속에서의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형상화라고 볼 수 있다.

차티 코로넬(Chati Coronel)은 회화적 욕망을 꿈꾼다. 기본적으로 인체형상을 그려내지만 코로넬이 그리는 인물형상은 화면에 있어서의 포지티브 공간과 네거티브 공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율동한다. 어느 인물상이든지 다소 과장된 제스처로서 인식된다. 소리를 지르거나 양손을 뻗어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는 듯 하고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있어 어디론가 움직일 듯 보인다. 이들 인물 형상을 부각시키는 요소는 세밀한 묘사가 아니라 경쾌하고 자유분방한 색채의 스펙트럼뿐이다. 인체의 형상성과 색채의 조화를 위해 차티 코로넬은 작은 캔버스가 아닌 대형의 캔버스를 사용하고 물감도 붓질의 즉발적인 효과와 물감층의 겹침이 용이하게 드러나는 아크릴을 사용한다. 회화적 자유로움을 만끽시키는 긍정적 에너지가 분출된다.

마지막으로 제드 메리노(Ged Merino)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제드 메리노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 작가의 최근 작업은 신발이나 책 등을 낡은 옷과 천, 실 등으로 감싸 예술적 오브제로 재탄생 시키는 작업이다. 그의 작업은 그의 작업에 동참하는 참여자들과의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곤 한다. 이 작업의 발상에 대해 메리노는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가 낡은 천을 이용해 새 것 같이 만들어내는 것을 기억하면서 착안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작업의 프로세스는 자발적이고 직관적이며 즉흥적으로 일어난다. 잊혀지거나 방기된 사물들의 가치를 재소환 하여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3. 전시의 의미

필리핀 미술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의 양상에 대해 우리는 무지에서 비롯된 막연한 오해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 서양의 유화기법이 우리나라 보다 늦게 도래하였을 것이라든가, 혹은 모더니즘 미술의 태동 역시 우리보다 한참은 뒤에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억측으로 필리핀 미술을 들여다본다면 필리핀 미술의 실체에 다가가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반증하듯 세계 미술계에서 언급되는 필리핀 작가의 이름과 숫자는 상당하다. 각각이 보여주는 예술적 성취에 대한 찬사도 화려하다. 수준 높은 미술사학자들과 비평가들은 자국 예술가들의 작업에 대한 논평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필리핀 전시기획자 중엔 이미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들도 발견할 수 있다. 당연히 필리핀 현대 미술가들의 작업의 수준과 작품의 질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세계적 명성을 차지한 작가들의 맹렬한 활동도 놀랍지만, 신진 작가 중에도 잠재력을 지닌 경우가 많아 추후의 활동에 대해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여러 난맥상을 고려해 볼 때, 미술영역에 있어 풍요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양상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민감한 소재 다루며 예술의 사회적 기능 고민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필리핀 작가들은 자국이 겪어왔던 식민주의의 역사와 종교, 제국주의 등의 민감한 소재를 다루며 예술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역할과 기능, 반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알려져 있다. 필리핀을 대표하는 미술사가이자 전시기획자인 패트릭 플로레스(Patrick D. Flores)는 자국 미술의 특징과 경향을 연극적 가장과 패러디에의 선호, 다양한 의미작용을 즐기는 감각, 유령과 같은 환영 (spectrality and haunted–ness)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필리핀 현대미술 작가들의 다양한 층위를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작가들이 빼어난 회화적 감각과 기량을 지닌 경우가 많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유, 현실에 대한 대응을 시대적 아이콘이나 상징물을 통하여 표현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필리핀의 사회, 정치적 이슈들을 역사적인 상징들과 개인의 기억으로 재구성하는 작가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번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기획한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11명의 작가들은 필리핀 미술의 전통을 의식하고 현대적 특성과 경향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작가들이다. 그들의 작업에서 필리핀 현대미술이 추구하는 가치의 일면들이 상당히 다채롭게 드러난다. 그것은 시대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으며 인간 혹은 필리핀인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어 미술의 진실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다. 필리핀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펴보는 이 전시는 필리핀 현대미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좀 더 확장 시켜줄 것이다.

PHILIPPINES

The Contemporary Art of the Philippines: Its Hybridity and Dynamism

Choi, Eunju
Curator

The contemporary art of the Philippines had to make a double effort to restore the democratic values undermined by dictatorship and to cope with the fierce wave of globalization. Pluralistic themes were discussed in art and a new century has emerged where the content, form, production and acceptance of art are at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The eleven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organized by Hansae Yes24 Foundation are artists who are conscious of the traditions of Philippine art. They reflect various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and trends in their work, and take the various issues at the present time seriously.

1. Art of the Philippines

Surprisingly, the time when Western oil painting techniques were introduced to the Philippines was the 16th century, during the Spanish rule (1521–1898). And for four centuries until the nineteenth, oil painting artisans in the Philippines painted religious pictures using Western techniques. Entering into the 19th century, local elites known as Ilustrado turned to skilled oil painting masters for portraits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ey demanded those oil painting masters to use techniques that were going to enable them to show off their intellectual level and wealth. This means Philippine art had set out for secularization. Miniaturismo, a technique used to depict details in painting as in laces or gold crafted jewels, was widely used in their portraits. The fact that such techniques were used means Filipino painters had fully embraced oil painting techniques.

Acceptance of Modernism vs. Resistance to Imperialism

The Philippine Revolution from 1896 to 1898 and the war between Spain and the United States from 1899 to 1902 ended Spain's colonial rule over the Philippines. The United States ruled the Philippines from 1899 to 1946, although it might as well need to consider Japan's short occupation period over the Philippines from 1942 to 1945. Filipino art historians classify the period from the U.S.' colonial period to 1969 when the presidential system was introduced as 'post–colonial period'. During this period, the Philippine art circle accepted modernism in step with a resistance to imperialism and modernization in art was promoted. The academic system, represented by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chool of Fine Arts, established in 1909, was featured, and the combination of realism and romanticism became the most representative form of the Philippine art. Fernando Amorsolo, the forerunner of this trend, expressed his infinite love for the country by idyllic paintings of rural landscapes. This trend was soon challenged by the rise of modernism in the 20th century. Subsequently, a fierce debate broke out between conservatism and modernism, and each camp vigorously asserted its own argument. In the 1950s, the victory of modernism became evident. Modernist Filipinos explored various forms of modernism, including cubism, trying to overcome the remnants of colonialism and restore their sincerity through nationalism and post–colonialism. In the meantime, the Philippine cubism 'Transparent Cubism' was created by Vincent Manansala, which was a great feat. The Philippines became presidential republic in 1969. Filipino art historians classify the period from 1986 as the "state period," and from 1987 to the present, as the "late state period." During the state period, Filipinos experienced President Ferdinand Marcos's dictatorship. Marcos's wife, Imelda Marcos, advocated modernism. Imelda's intention was to reveal that the Philippines is a democratic country capable of supporting avant–garde art. However, it is also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that under the dictatorship, progressive art groups and artists appeared, paying attention to the people crushed by poverty and oppression. Painters of 'Progressive of Arts and Architects', a political art organization formed in 1972, and 'Kasibulan', a feminist group, were social realists pursuing their national identity and kept asking 'the role of art' and 'whose art it was'.

The later period (1987–present) was triggered by the People Power Revolution in 1986. During this period, Philippine art had to make a double effort to restore the democratic values undermined by dictatorship and to cope with the fierce wave of globalization. Pluralistic themes were discussed in art and a new century has emerged where the content, form, production and acceptance of art are at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Nevertheless, the political and economic turmoil in the Philippines has remained, the sufferings of the poor have intensified, and the number of Filipinos who wander the world

in order to provide the labor force is increasing. How would contemporary Filipino artists react to these situations?

2. The world of works of participating artists: Landscape, Heredity, Satire, Desire, and Healing

The intense structures and colorful, unidentified structures that appear in the landscape of Zean Cabangis signify the existence of artifacts to nature. Cabangis's intention of placing multiple layers of images on the screen in combination with photographic and painting techniques metaphors the state where nature is transformed, distorted, and controlled by humans, though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a way to express the presence of humans who have coexisted with nature. The structures created by Cabangis' imagination daringly embedded in the real landscape seem to have nothing to do with their actual use, but they show a clear presence due to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cale. In particular, large structures built up using colorful stripes and holes that seem to dig into the earth's surface appear as metaphors of landscapes that symbolize the cross-section of the strata and express the psychological strata within humans.

The view of Lui Medina also stays in the scenery all the time. But her point of view is focused on the ambiguity where the edge of a landscape or two landscapes overlap. This is because fixed topography does not exist in the natural landscape. As such, Medina's work focuses on revealing the potential of floating landscapes. Sometimes they refuse to clear the border between landscapes. For Medina, the earth is always a progressive planet that is newly formed, broken and split. Her landscapes, drawn in graphite, show the dynamics of the topographical landscape.

Kitty Kaburo is a Korean Filipino painter. Kaburo in her name is sort of a Korean transliteration. The artist, who remembers the word "kabuleo,"meaning acting like a clown wanted to maintain a connection with Korea by using this word in her name. There is Korean blood in her stream, but the landscape reflected in her eyes is a tropical landscape full of all the primary colors experienced in the Philippines. Seeing that the landscape contains intrigues and desires of a post-capitalist society, this young artist draws paintings that seem beautiful at a glance, but contain a dark narrative once you look into them deeper. The landscape of Eden with chemical dangers and neon flashes are a metaphor for Philippine reality.

Norberto Roldan, in a clear tone, recreates the objet art that expresses the root of the Filipinos present life and how it became the way it is today. All the objects in his works have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lives of Filipinos and reshape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It is only natural that his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onditions are read in his works. Nostalgic old black and white portraits, floral embellished frames, hallows for prayer, small figurines and pill bottles seem to summon one's private past, but in fact hint the passage of history that Filipinos have gone through.

Stories of his father's father, grandfather's grandfather, mother's mother, and grandmother's grandmother who had lived as Filipinos are encapsulated in his works. 'Refugees' and 'missionaries' are words that imply a pattern of Filipino life. The Order series, which employs a banner format used in traditional rituals, shows how Roldan is involved in the search for Filipino identity.

John Frank Sabado works in the category of drawings. His images, drawn in pen and ink on paper, are more Filipino-centric than any other artist. Even when drawing figures, the characters in his paintings are ethnic minorities whose faces are decorated with tattoos. The characters' necks and ears are embellished with necklaces and earrings to identify the tribal society they belong to. In the background of the

figures, volcanoes, forests, trees and birds of the Philippines are placed, which is enough to give the impression that the Philippines itself is drawn. Even if the figure is missing, Sabado's paintings are iconologically interpreted in the myths and tales of the Philippines. They follow the shape of the mandala.
The painters who entered the realm of satire from a sharp critical point of view include England Hidalgo and Alvin Gregorio. Hidalgo reveals, at a glance, that he was deeply influenced by engravings such as Goya's Los Caprichos (1797–1799) and Los Desastres de la Guerra (1810–1815). Just as Goya produced this engraving, which depicted the corrupt practices, conventions, religious corruption, incompetent politics, and miserable people of Spanish society at that time, Hidalgo also portrayed humanity seized by madness and violence.
The historical fact that Spain's rule of the Philippines lasted from the 16th to the 19th century suggests that people can experience similar emotions that are prevalent in Spain and the Philippines in Hidalgo's paintings. The consensus is further amplified by the appearance of the characters' clothes in European style, rather than indigenous costumes in the Philippines. Hidalgo's bizarre and eerie paintings, which are obviously the scene of slaughter, whether it is Spain or The Philippines, are satirized in the winding history and absurd reality of the Philippines.
Alvin Gregorio's satire is reinforced by pop or comic images. His family had no choice but to live a nomadic life after World War II. Gregorio, who has grown from country to country, naturally deals with themes of immigration, family breakup, globalism, violence and war. The owl and panda in his paintings are the persona of the artist and express sense of loss and helplessness of another identity. They are immersed in the thoughts of the night, make their own room, and make a gesture of non-resistance without moving.
Victor Balanon uses cinematic techniques. In producing a series called Paradox Generator, Balanon completed the black and white drawing using only ink and charcoal. The atmosphere of these drawings seems to connect the still cuts of a silent film. Most of the time, scenes that appear to be zooming in on a certain part cause numerous hints and foreshadowing. Balanon's drawings, though they are mere painting, approach viewers as if they are a film that has had a completely different synopsis by Balanon's editing. Since each scene is independent, viewers can immerse themselves in the game of creating their own stories while watching Balanon's work.
Patricia Perez Eustaquio works on a variety of media to remind the subject of the periphery. The interest in the periphery or discarded things encourages the artist to utilize various media, so the category of materials she uses can be seen as very wide. However, Eustaquio's interpretation of the material yields more than expected results when it comes to meeting fabrics such as cloth and yarn. Eustachio draws on the fragments of fabric, the remains of "desired desires," bringing their inspiration and vanity into her work. The millefleur style, reminiscent of colorful floral patterns in her tapestry, can be seen as a manifestation of swirling desires in the modern consumer culture society.
Chati Coronel dreams of a pictorial desire. Basically, the human figure is drawn, but the figures Coronel draws move regardles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space on the screen. Any figure is perceived to have a rather exaggerated gesture. They seem to want to move to somewhere as they are screaming, reaching out with their hands, and trying to grab the other's hand. The elements that highlight these figures are not detailed descriptions, but light and freely colored spectrum. To balance the shape and color of the human body, Chati Coronel uses a large canvas rather than a small one, and acrylics that reveal the immediate effect of brushing and the overlapping of paint layers. Positive energy is spewed out to enjoy painting freedom.
Finally, I should mention Ged Merino. Ged Merino is a New York based artist. The artist's recent work is to recreate shoes and books as artistic objet by wrapping them with old clothes, cloth, and thread. His work often takes the form of workshops with participants in his work. Merino tells that his work started when he remembered as a child his mother would use old cloth and make it into a new. The process of work takes place voluntarily, intuitively and improvised. Efforts are made to heal the wounds of life by recalling the value of forgotten or abandoned objects.

3. Meaning of the Exhibition

We may have been trapped in a vague misunderstanding originated from ignorance about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present aspects of the Philippine art. For example, it is very difficult to approach the reality of Filipino art by speculating that the Western oil painting technique may have arrived in the Philippines later than it did in our country, or that the birth of modernism may have been started much later than it did in our country.
As if they are disputing these speculations, the names and numbers of Filipino artists mentioned in the world of art are significant. The admiration for the artistic achievement each shows is also tremendous. High-quality art historians and critics continue to publish commentary on the work of their own artists, and there already are Filipino exhibition planners who lead an active role globally. Naturally, the quality and level of the work of Philippine contemporary artists is far beyond our expectations. It is surprising to see the artists who have already gained world fame, but many young artists have potential to be leading the world's art circle. Considering the various feverish condition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the Philippines, we have to wonder where this aspect, which can be said to be abundant in the art field, comes from.

Contemplating on the social function of art, dealing with sensitive issues

Generally speaking, Filipino painters are known to deal with sensitive subjects such as colonial history, religion, and imperialism, and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role, function and repercussions of art in society. Patrick D. Flores, one of the leading art historians and exhibitors of the Philippines, said that Filipino art tend to be attracted to theatrical impersonation and parody, the sense of enjoying various meanings, and spectrality and hauntedness. The reason why the various levels of Philippine contemporary artists are explained in this way is that the artists often have exceptionally painterly senses and skills, and they express the poignant metaphors of their society and their responses to reality through period icons or symbol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t is not difficult to find painters who reconstruct th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of the Philippines into historical symbols and personal memories. The eleven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organized by Hansae Yes24 Foundation are artists who are conscious of the traditions of Philippine art. They reflect various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and trends in their work, and take the various issues at the present time seriously. In their work, many aspects of the value pursued by Philippine contemporary art are revealed. It may be the age, it may be society, it may be the identity of a human or Filipino, or it may be a desire to skip all of these and explore the truth of art. This exhibition, which examines the diversity and dynamics of Philippine contemporary art, will expand our understanding of Philippine contemporary art.

ARTISTS

Ged Merino
제드 메리노

Zean Cabangis
진 카반기스

Lui Medina
뤼 메디나

Victor Balanon
빅토르 발라농

Kitty Kaburo
키티 카부로

Alvin Gregorio
알빈 그레고리오

England Hidalgo
잉글랜드 히달고

John Frank Sabado
호안 프랭크 사바도

Patricia Perez Eustaquio
페트리샤 페레즈 유스타키오

Chati Coronel
차티 코로넬

Norberto Roldan
노베르토 롤단

Ged Merino

제드 메리노

Selecting Memory in Orange, Yellow, Purple, Gold, Magenta and Pink

2018, Repurposed fabric on found and personal objects, 112 x 181 x 53 cm

Kuwentong Kutsero

2019, Horse carriages, Horse carriages parts, Repurposed fabric on found and personal objects, Video and sound installation

Zean Caban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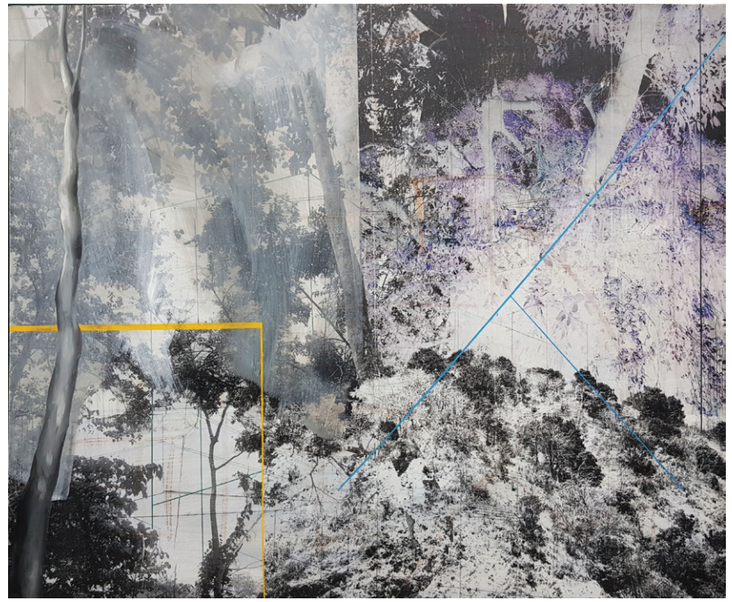
진 카반기스

Racing Around to Come Up Behind You Again I, 2017, acrylic and emulsion transfer on canvas, 244 x 183 cm

Racing Around to Come Up Behind You Again II, 2017, acrylic and emulsion transfer on canvas, 244 x 183 cm

It's Enough to Just Stand and Stare
2017, acrylic and emulsion transfer on canvas, 150 x 120 cm

Some Place Only I Know II
2019, acrylic and emulsion transfer on canvas,
67 x 92 cm



Some Place Only I Know I
2019, acrylic and emulsion transfer on canvas,
67 x 9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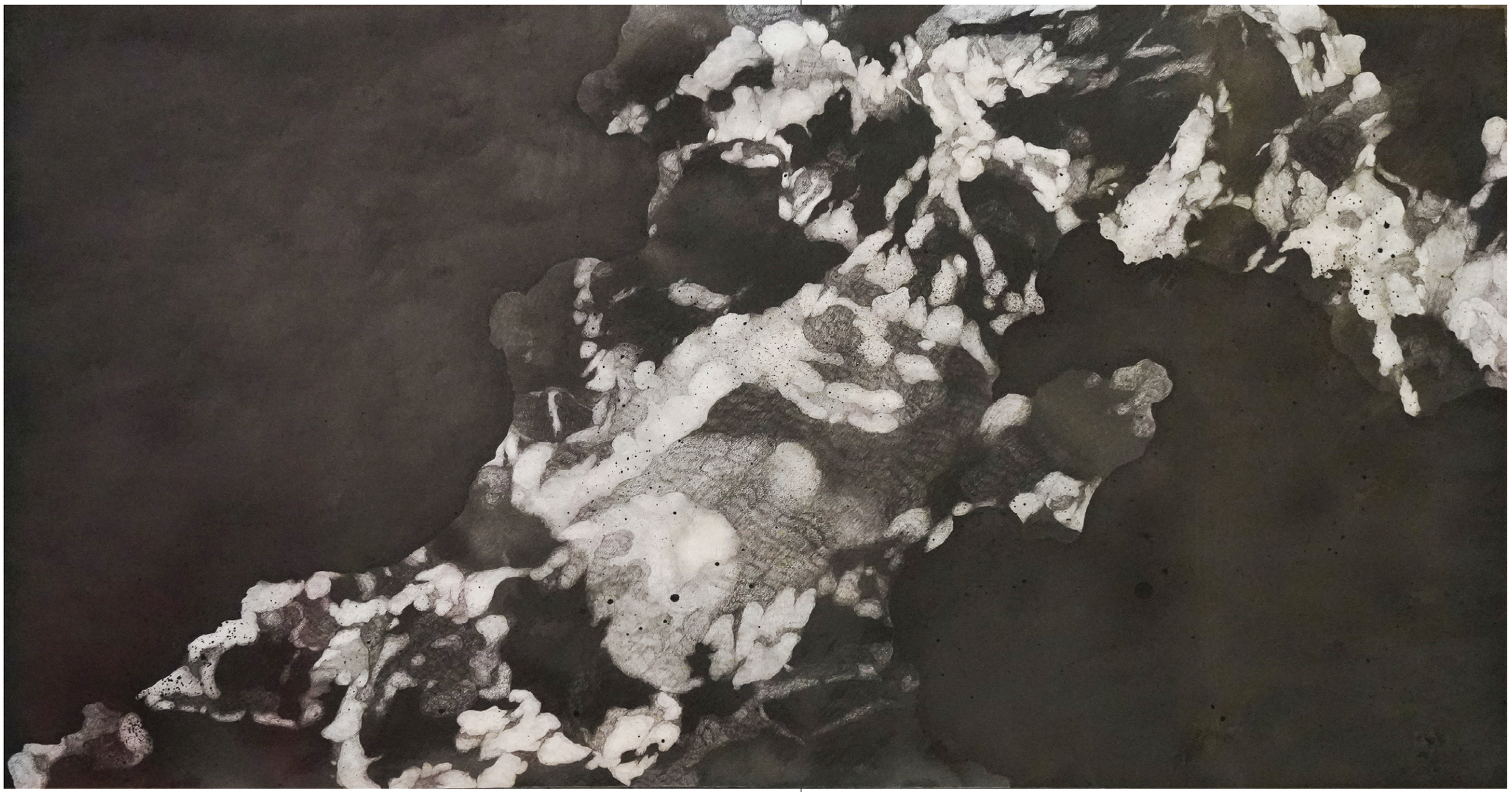
Lui Medina

뤼 메디나

Untitled (Bobbio Pelice) II
2019, c-print on acid-free paper, 110 x 188 cm

Untitled (Bobbio Pelice) I
2019, c–print on acid–free paper, 110 x 18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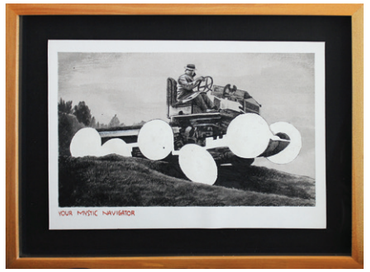
Untitled (After Notion of the Edge) I
2019, graphite on paper, 110 x 189 cm



Untitled (After Notion of the Edge) II
2019, graphite on paper, 110 x 18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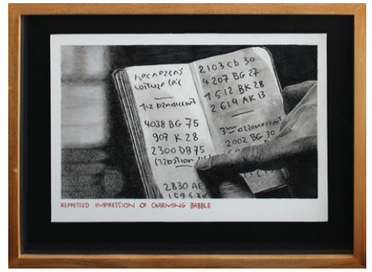
Victor Balanon

빅토르 발라농



Paradox Generator

2019, ink and charcoal on stonehenge paper, 30 x 15 cm per panel 10 panels to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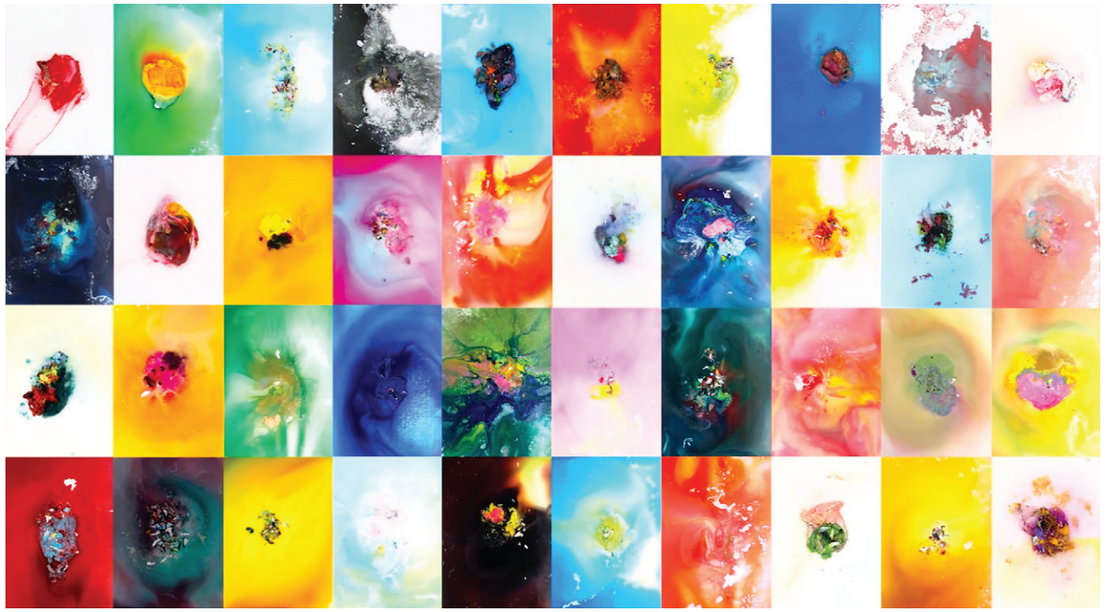
Kitty Kaburo

키티 카부로

Chemical Eden, 2018, oil on canvas, 122 x 92 cm

Neon Distraction
2018, oil on canvas, 61 x 46 cm

Endless Stream
2019, oil on canvas, 122 x 188 cm



Illusion of Choice
2019, single-channel digital video, 10 minutes edition of 4

Alvin Gregorio

알빈 그레고리오

Non-violent Resist-stance

2008, Mixed media on canvas, 180 x 163 cm

Making Room
2008, Mixed media on canvas, 161 x 163 cm

Lionization
2008, acrylic on canvas, 111 x 215 cm

England Hidalgo

잉글랜드 히달고

Demon System 13

2012, Ink on paper, 164 x 112 cm

Not so quiet on the Western Front
2012, Ink on paper, 164 x 112 cm

Eskorbuto
2012, Ink on paper, 113 x 51 cm

Bloody Route of Khyber Pass
2012, Ink on paper, 113 x 51 cm

John Frank Sabado

호안 프랭크 사바도

Highland Dragonfly, 2016, Pen and ink on paper, 76 x 51 cm

Keeper of the Lunar Cycle
2016, Pen and ink on paper, 51 x 76 cm

Autofocus, 2016, Pen and ink on paper, 76 x 51 cm

Image of the past I, 2014, ink on paper, 79 x 61 cm

Patricia Perez Eustaquio

페트리샤 페레즈 유스타키오

Untitled (Millefleurs) I, 2017, tapestry, 148 x 93 cm / Edition 3 of 3

Chati Coronel

차티 코로넬

Invoke: Light to Matter to Spirit

2019, acrylic on canvas, 183 x 305 cm (diptych)

Violet (Take Your Light to the Top and Light It All Up)
2016, acrylic on canvas, 183 x 153 cm

Norberto Roldan

노베르토 롤단

Fugitives From Years of Captivity XX

2018, assemblage with old photographs and found objects, 49 x 49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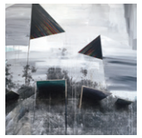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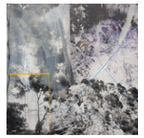
Fugitives From Years of Captivity XXXX
2018, assemblage with old photographs and found objects, 49 x 49 cm

The Catechists X, 2018, collage with found objects, 69 x 49 cm

The Catechists XX, 2018, collage with found objects, 69 x 49 cm

Index

Ged Merino
018

Zean Cabangis
022  

Lui Medina
030

Victor Balanon
038

Kitty Kaburo
040

Alvin Gregorio
048

England Hidalgo
054

John Frank Sabado
060

Patricia Perez Eustaquio
068

Chati Coronel
070

Norberto Roldan
074

Biography
약 력

Ged Merino 제드 메리노

Born in 1962, Manila, Philippines
Lives and works in New York City

2018 Selecting Memory, The Drawing Room Contemporary Art
Imaginarium: The GedAze Project, Singapore Art Museum, Singapore
Stem: The GedAze Project, BenCabMuseum Baguio City
2017 Open Threads: The GedAze Project, Topaz Arts, NY
Prelude: The GedAze Project, TDR Escolta
Ripples and Layers: The GedAze Project, Fundacion Sanso, Philippines
Existence: The GedAze Project, UP Vargas Museum, Philippines
2016 Sound in Our Head: The GedAze Project, Bliss on Bliss Art Projects, NY, NY
London Biennale Manila Pollination, Met Theatre, Manila
2015 Southeast Asia Art Platform, Artstage, Singapore
2014 Sueños Recurrentes, Galeria Expreso del Arte Bogotá, Colombia
2012 Prints and Paintings, Bliss on Bliss Art Projects NY
2006 New Works, New York, Avellana Gallery, Philippines
2005 Manila to Williamsburg, Goliath Space, Brooklyn, NY
1988 New Works, Philippine Consulate, NY, NY.
1987 5th ASEAN Youth, National Museum, Singapore
1986 Filipino Contemporary Artists, Ayala Museum, Philippines

Zean Cabangis 진 카반기스

Born in 1985, Tayabas, Philippines
Lives and works in Manila, Philippines

2019 forthcoming, Artinformal, Manila
Living Earth, Pinto International, Milan
2018 Somewhere, Anywhere, Artinformal, Manila
2017 Echoes, Art Basel Hong Kong, Discoveries Section, Artinformal, Hong Kong
2016 14°35'51.3" N 121°09'51.3 E, Pinto Art Museum, Antipolo, Philippines
When Lens Meets Brush, National Museum, Manila, Philippines
2015 Mistaken for Wonders, Art Fair Philippines, Artinformal, Manila
2014 Reclaim, Artinformal, Manila fib, Silverlens, Manila, Philippines
2012 Goat Paths, Artinformal, Manila
Would That It Were, West Gallery, Manila, Philippines
2011 Walking On Thin Ice, Artinformal, Manila
Gathering, Now Gallery, Manila, Philippines
2010 Dream Come True, Boston Gallery, Manila
2009 2/60, Kaida Contemporary, Manila
Prospekts,The Forth Gallery, Singapore
2008 Lualhati, Artinformal, Manila
Tutokkk, Blanc, Manila
False Windows and Other Truths, Kaida Contemporary, Manila

photograph by
Tammy David for
Nolisoli.ph

Lui Medina 뤼 메디나

Born in 1981, Manila, Philippines

2019 FLUIDO, Artinformal,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2018 The Notion of The Edge, Artinformal, Makati, Philippines
Archipelago,Associazione Quasi Quadro, Turin, Italy
2017 A Different Way of Painting; A Different Way of Thinking About Painting?, Langgeng Art Center, Yogyakarta, Indonesia
2016 Where does landscape begin?, ArtInformal, Manila, Philippines
Every Island from Sea to Sea: Recent Philippine Art, Mindset Art Center, Taipei, Taiwan
2015 You Must Change Your Life, Equator Art Projects, Singapore
2014 Lui Medina, ArtInformal, Manila, Philippines
Radiation: Art & Queer Ideas from Bangkok & Manila, Un-compared, Art Center of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2013 Metamorphic Histories, UP Vargas Museum, Manila, Philippines
2012 Ascetics (Unbound), 20square, Slab/Silverlens Galleries, Manila, Philippines
2011 Sacrosanct,The Project Room, Mo_Space, Manila, Philippines
Raptus, Manila Contemporary, Manila, Philippines
2010 Get On, Get In, Get Out, Holster Projects, London, UK
2009 Despoil, Finale Art File, Manila, Philippines
Slowly Slowly Catchee Speedy! Ten Seconds on Speed, Oubliette Arthouse at the former Mexican Embassy, London, UK
2006 I Love It When You Lie, Finale Art File, Manila, Philippines
2005 Canned Thoughts, Mag:net Art Gallery, Manila, Philippines
Slit, Finale Art File, Manila, Philippines
2004 Peep, Finale Art File, Manila, Philippines

Victor Balanon 빅토르 발라농

Born in 1972, Manila, Philippines

2018 THREE THEMES FOR FRITZ LANG, Underground Gallery, Makati City
STREET MINING: Contemporary Art from the Philippines, Sundaram Tagore, Singapore
2017 PARLIAMENT OF ROOKS, Vinyl on Vinyl Gallery, Makati City
X/Y/Z, Blanc Gallery, Quezon City
FOR TOMORROW YOU WILL NOT RECOGNIZE US, Mind Set Art Center, Taipei, Taiwan
CINERAMA: Art and the Moving Image in Southeast Asia, Singapore Art Museum, Singapore
MYSTERY CASES IN CONTEMPORARY ART, Kaohsiung Museum of Fine Arts, Taiwan
2016 CHIMERA, Finale Artfile, Makati City
TOTEM, West Gallery, Quezon City
2015 AND IN ARCADIA, MO_Space, BGC, the Fort, Taguig City
VEXED CONTEMPORA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Design, Manila, Philippines
2014 A NATION OF ULYSSES, Artesan Gallery, Singapore
WAKING BABYLON/ BABYLON WAKING, Artinformal, Mandaluyong City
THE NAMELESS HUNDRED, Mind Set Art Center, Taipei, Taiwan
2013 LOSING THE PLOT ON THE GRAND SCHEME OF THINGS, Finale Artfile, Makati City
MIRROR, West Gallery, Quezon City
A SOMNAMBULIST MANIFESTO, Artesan Gallery + Studio, Singapore
2012 THE LAST UTOPIAN, Blanc Compound, Mandaluyong City
2011 ANTE BELLUM, Artesan Gallery + Studio, Singapore
THROUGH A GLASS DARKLY, Blanc Gallery, Makati City
2010 THE CROCOGATOR (collaboration with Ferdz Valencia), Green Papaya Arts Project, Quezon City

Biography
약 력

Kitty Kaburo 키티 카부로

Born in 1987

2018 Out of Time, West Gallery, Quezon City
Manila Biennale 2018: Open City, Mission House, Intramuros
Manila Tongues, JStudio, Makati City
2017 Lo Res,Tin–Aw Art Gallery, Makati
2016 Hidlaw,Tin–aw Art Gallery, Makati
Our Kitchen Table, Art Kaohsiung, Kaohsiung, Taiwan
Lifejacket Under Your Seat, Selasar Sunaryo Art Space, Bandung, Indonesia
2015 Crystal Opus, 9 8B COLLABoratory, Manila
Violent Noon, Artinformal, San Juan
Halo Halo States of Matter, UP College of Fine Arts, Quezon City
2014 Bookends, Blanc Gallery, Quezon City
Kandinsky, J Studio,Taguig
Siet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Quezon City
2013 Eyes of Gauze, the Trails and Mists of Santiago Bose's Vision, Tin–aw Art Gallery, Makati
2012 Fishnet Strangling She–Male Acupuncture Bitchfest or the Y2K Babes, Finale Art File, Makati

Alvin Gregorio 알빈 그레고리오

Born in 1974, Los Angeles, California USA
Lives and Works in Boulder/Denver, Colorado USA and Los Angeles, California USA

2017 NOT TODAY, solo exhibition in collaboration with Adam Flores, The Drawing Room Gallery, Manila, Philippines
2014 What If..., curated by Direct Connect Denver, Groundswell Gallery/Hinterland/ Showpen, Denver, CO and Neurotitan, Berlin, Germany
2013 Portable Love, solo exhibition, curated by Cortney Lane Stell,RUDE Gallery, Rocky Mountain College of Art and Design, Denver, CO
Spontaneous Interventions: design actions for the common good, CAMPITO project, collaboration with Richard Saxton/M12, Chicago Cultural Center, Chicago, IL
Psychotropics, curated by Sidd Perez, the Drawing Room Gallery, Gillman Barracks, Singapore
2012 SHELTER, curated by Viviane Le Cortois, DAVA, Aurora, CO
13th International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Spontaneous Interventions: design actions for the common good, CAMPITO project, collaboration with Richard Saxton/M12, U.S. Pavilion, Venice, Italy
Short Memory, The Drawing Room gallery, Gillman Barracks, Singapore
2011 PULSE L.A. Contemporary Art Fair, The Event Deck at L.A. Live, Downtown Los Angeles, CA
2010 Shut Your Face Off! two–person collaborative exhibtition w/ DonaldFodness as the Flying O.H.N.O. Twins, Boulder Museum of Contemporary Art, CO
2009 In the House of Your Tomorrows, solo exhibition–containing collaborations w/ Michael Bernhardt, Amber Britton, Donald Fodness, and AnnaHarber– Freeman, VERTIGO Art Space, Denver, CO
VERSO MANILA–Contemporary Filipino Artists in Turin, Verso Arte Contemporanea, Turin, Italy
Fresh Produce, Anno Domini Gallery, San Jose, CA
2007 Jerusalem Program, residence of the Public Affairs Officer of the U.S. Consulate General in Jerusalem, East Jerusa–lem, Israel
2006 OsCene 2006, curated by Jacqueline Bunge, Laguna Art Museum, Laguna Beach, CA

England Hidalgo 잉글랜드 히달고

Born in 1977, Quezon City, Philippines

2013 I Don't Wanna Grow Up, The Drawing Room, Makati City, Philippines
2012 Lo Mismo, The Drawing Room, Makati City, Philippines
2011 In Disgust, Lost Projects, Marikina City, Philippines
2010 San Francisco Fine Art Fair, SFMOMA Artists Gallery, San Francisco, California
REMIX: Santiago Bose, Yuchengco Museum, Makati City, Philippines
Fact Sheet , Manilatown Heritage Foundation Gallery, San Francisco, California
Amor Fati , Joyce Gordon Gallery, Oakland, California
2009 Asimilasyon Radikal,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Manila, Philippines
Mission Cultural Center for Latino Arts, San Francisco, California
2008 Kwatro–Kantos, 21 Grand Gallery, Oakland, California
Advancing the People's Struggle!, Balazo 18 Art Gallery, San Francisco, California
2007 Overmapped, SomArts Cultural Center Main Gallery, San Francisco, California
2005 Profits Enslave the World: Philip Vera Cruz Centennial Celebration, Asian Resource Gallery, Oakland, California
Filipino Arts Exchange, CCSF/ Yerba Buena Gardens, San Francisco, California
2004 Filipino American Heritage Month, Philippine Center, San Francisco, California

John Frank Sabado 호안 프랭크 사바도

Born in 1969, Mankayan, Benguet, Philippines

2016 Images of the Past I, The Drawing Room, Manila, Philippines
2014 Northern Postcards, The Drawing Room, Gillman Barracks, Singapore
2013 Kalasag (Four man Show), Artist Space, Ayala Museum, Makati City
2012 Origin and Translations, Yuchengco Museum, Makati City
Vanguards of the Earth, The Drawing Room, Makati City
2011 Review, BenCab Museum, Asin Rd., Tuba, Benguet
Four Folds, Nova Gallery, Makati City
2009 Tradition and Innovation, Ayala Museum, Makati City
Inauguration, BenCab Museum, Asin Rd., Tuba, Benguet
2003 Philippine Art Award, Metropolitan Museum, Manila
2002 The 2nd Fukuoka Asian Art Triennial, Fukuoka, Japan
Art Serves As My Religion, Tam–Awan Village, Baguio City
2001 16th Asian Int'l Art Exhibition, Guandong Museum of Art, China
1999 3rd Asia–Pacific Contemporary Art Triennial, Brisbane, Australia
1991 Art Ruptions,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Manila
1990 Baguio Art Festival, Baguio Convention Center, Baguio City

Biography
약 력

Patricia Perez Eustaquio 페트리샤 페레즈 유스타키오

Born in 1977, Cebu, Philippines

2019 Art Basel, Silverlens, Hong Kong
Art Fair Philippines, Silverlens, Manila
Taipei Dangdai, Silverlens, Taipei
2018 West Bund Art and Design 2018, Silverlens Shanghai
Conversation Among Ruins, Mind Set Art Center, Taipei
2017 Still Life, Silverlens, Manila
Sydney Contemporary, Carriageworks, Sydney, Australia
2016 Flowers for X, Yavuz Gallery, Singapore
That Mountain is Coming, Palais de Tokyo, Paris
Black Dust, Tyler Rollins Fine Art, New York
2015 The Hunters Enter the Woods, Silverlens, Manila
2014 Figure Babel, Mind Set Art Center, Taipei and Silverlens, Manila
2013 The Future That Was 2.0, TRFA, New York
The Future That Was, Jorge Vargas Museum,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Manila
2012 Solo show, Silverlens, Singapore
2011 Cloud Country, Silverlens, Manila
2010 Dear Sweet Filthy World, Silverlens, Manila
2008 Death to the Major, Viva Minor, Silverlens, Manila
2004 Swine, Green Papaya Art Projects, Manila
2003 Split Seam Stress, Ayala Museum, Manila

Chati Coronel 차티 코로넬

Born in 1970, Manila, Philippines

2019 Art Basel, Silverlens, Hong Kong
Art Fair Philippines, Silverlens, Manila
2018 The Infinite Yes, Silverlens, Manila
Art Fair Philippines, Silverlens, Manila
Shared Coordinates, a collaboration of Edouard Malingue Gallery, ROH Projects, MSAC and SILVERLENS, The Arts House, Singapore
2017 Translación, Inaugural Exhibition, Curated by Gary–Ross Pastrana, Silverlens, Manila
2016 The Way In/The Way Out, Silverlens, Manila
2015 How to Open a Mountain, Silverlens, Manila
Bazaar Art Jakarta, The Ritz Carlton Jakarta Pacific Place, Indonesia
Surrounded by Water, Finale Art File, Manila
Art Fair Philippines, Silverlens, Manila
2014 The First Kiss on Earth, Silverlens, Singapore
Art Fair Philippines, Silverlens, Manila
2013 A Tribute to Heroines, Louis Vuitton 20th Anniversary Exhibit, Manila
2012 SkinSkin, Silverlens, Manila
2011 Hybrids, curated by Rachel Rillo, Blanc, Manila
2010 An Hour in a Glass Balloon, Silverlens, Manila
2009 Primal Prayer, Groundfloor@Santeecourt Gallery, Los Angeles
2007 Minus, Groundfloor@Santeecourt Gallevvry, Los Angeles
2003 The Dakini Principle, The Podium, Manila
Lila: Divine Play, Big and Small Gallery, Manila
1997 Supershine, Surrounded by Water Gallery, Manila

Norberto Roldan 노베르토 롤단

Born in 1953, Roxas City, Philippines

2018 Artissima, Silverlens, Torino
How can you jump over your shadow when you don't have one anymore?, Silverlens, Manila
A Beast A God and a Line, Museum of Modern Art, Warsaw
2017 Norberto Roldan: Rituals of Invasion and Resistance: Survey of Installation Works 1992–2017, curated by Patrick D. Flores, Jorge B. Vargas Museum,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In Search of Lost Time (with apologies to Marcel Proust), MO_Space Bonifacio High Street, Taguig City
2015 The Past Is Another Country, MO_Space, BCG Taguig
The Unbearable Whiteness of Beauty, Taksu/Art fair Philippines, Makati
2014 One Day I Will Find the Right Words and They Will Be Simple, Taksu, Kuala Lumpur
Hym Among the Ruins, Taksu/Art Fair Philippines, Manila
2013 Savage Nation, MO_Space, BCG Taguig
No Empire Lasts Forever, Taksu, Singapore
2012 Hail Mary, Vulcan Artbox, Waterford, Ireland
Heretical Bias Towards Indifference, Now Gallery, Manila
2011 The Beauty of History Is That It Does Not Reside in One Place, Taksu at Art Stage Singapore
2010 Not Past Nor Future, Neither Dead Or Alive, Silverlens, Manila
2009 Give Me Tears Give Me Love Let Me Rest Lord Above, , Pablo Gallery–The Fort, Manila
Sacred is the New Profane, Taksu, Singapore
Everything is Sacred, Taksu, Kuala Lumpur
2008 Objects and Apparitions, MO Space, Manila
2007 Oil, Magnet Gallery, Manila
2005 Esperanza y Caridad, Green Papaya Art Projects, Manila
2004 Confessional Box, Alliance Française de Manille, Manila
2003 Mother of Perpetual Colony, Charles Darwin University Gallery, Darwin, NT Australia
2001 Faith on the Periphery, Green Papaya Art Projects, Manila
1999 Faith in Sorcery, Sorcery in Faith, Hiraya Gallery, Manila
1994 Orasyon, Hiraya Gallery, Manila
1989 Images of the Continuing Struggle, Artspace, Sydney, NSW Australia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 기념

2019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필리핀 미술, 그 다양성과 역동성

주최 HANSAE YES24 FOUNDATION
기간 2019. 9. 4 – 2019. 9. 9
장소 인사아트센터

전시기획 최은주
후원 외교부,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문화원, 주한 필리핀 대사관
전시홍보 이앤아트
도록 디자인 및 제작 DB Communication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2019 Hansae 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Exhibition

The Hybridity and Dynamism of the Contemporary Art of the Philippines

Organized by HANSAE YES24 FOUNDATION
Exhibition Period Sep 4, 2019 – Sep 9, 2019
Exhibition Venue Insa Art Center, Seoul, Korea

Curated by Eunju Choi
Partner wi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EAN–Korea Center, ASEAN Culture House, Embassy of the Philippines
Public Relations ENART
Catalogue Design DB Communication

2019 Hansae 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Exhibition

KITTY KABURO <Chemical Eden>

NORBERTO ROLDAN <Fugitives from Years of Captivity XXXX>

JOHN FRANK SABADO <Keeper of the Lunar Cycle>